

데스크



조 상 언 편집국장

마스크 안팎의 군상(群像)

코로나19가 전부인 세상이다. 코로나19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마스크(Mask). 마스크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얼굴에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총칭한다. 대개 가면이나 탈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면을 쓴 사람들끼리 연기하고 춤도 추는 유희를 Masque(Masquerade)라고 한다. Mask와 발음이 같다. 마스크는 단순히 외부의 해로운 공기 등 오염원으로 부터 차단하기 위해 눈도 코, 입만 보호하는 것들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는 보

건용 마스크로 분류할 수 있다. TV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역시 자신의 정체를 마스크로 숨기고 노래를 경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프로그램 출연자 상당수는 자신이 복면에 의해 가려지면서 노래를 부를 때 보다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소감을 피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스크라는 '보호막'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든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존 등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마스크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지는 좋은 편이 아닌게 사실이다. 최근까지도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해, 범죄자는 노출되지 않기 위해 착용하는게 다반사였다. 특히 범죄자들이 법원이나 검찰 및 경찰 등에 출석할 경우 대부분 모자와 함께 마스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했지만 마스크에 내포된 가면이나 탈의 의미

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가 있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나 다름없는 범죄자들을 일컫는다. 그만큼 마스크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처럼 좋고 나쁨이나, 선(善)과 악(惡)으로 대별되는 다양한 군상(群像)이 마스크라는 도구를 통해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다. 오히려 마스크가 인간사에 있어 적절한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빛어지고 있는 일상의 다반사가 초유(初有)이지만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힘듦'이다. 그리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치권과 중앙정부 등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총선 기간 내뱉었던 공약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놓고 어려운 형편 등을 고려해 약속한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기자

는 측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원금을 정치권에서 약속한대로 지급하면 선(善)이요, 차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악(惡)이라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긴 어렵다. 양측 모두 마스크(위선)를 벗고 마스크(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 울고 있는 사람들을 헤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더불어 바닥을 걱정해야 하는 국고(國庫)까지도 쟁겼으면 하는 바람은 지나친 욕심인가. 뭐든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신중모드를 견지한 가운데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4월23일자 '헤민스님의 365일 마음달력'에 이렇게 적혀있다. '번지점프를 하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그냥 뛰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뛰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말을수록,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냥 뛰십시오.'

사설

제주도 차원 실직자 지원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적 타격이 실로 엄청납니다. 그 여파가 언제 어디까지 미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세계가 직격탄을 받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제주지역 고용시장도 악화되면서 특단의 실직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와닿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실직자 증가에 따른 현단계 실업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2월 6004건입니다.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004건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실업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주연구원은 추가 생활안정지원금 검토,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만 제주도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또 취약계층 중장년층 구직촉진지원금을 확대해 고용장려금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그 후폭풍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실업자도 덩달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9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는 모두 936곳(근로자 1만 2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40여건임을 감안하면 제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차원의 중단기 실업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주연구원의 조언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열린마당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119의 약속



양 영 석 제주소방안전본부 구조팀장

제주소방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전담 이송하는 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4대를 7대로 강화해 24시간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 119종합상황실에서 후시 모를 2·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19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를 선별해 전담구급대, 일반 구급대로 구분해 출동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나 관광객은 119에 신고 시 해외 및 타 시도 방문 이력과 증상을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19대원들이 원활한 입수수행을 위해 개인장비인 보호복 및 마

스크, 글러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을 발표한 이래 항공편들이 결항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보호복 구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최선을 다해 보호복을 확보하고 있다. 119전담구급대는 공항만을 통해 제주에 입도하는 도민과 관광객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빠른 검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이송과 제주공항 워크스루가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에서 채취된 737건의 검체를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검역소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제주에서 지역감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함께 동참하자. 앞으로 제주소방은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 119대원들의 건강관리와 감염방지도도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뉴스-in

“총선 책임 미통당 지도부 총사퇴 될 것”

원 지사 '3선 도전' 즉답 피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15 총선 결과 책임과 관련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총사퇴론'을 거론. 원 지사는 23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성의 의원 이 지도부 책임 논의 여부를 묻자 “아마 당연히 총사퇴가 될 것”이라고 대답. 또 '3선' 도전 의향을 물은 질문에는 “미래 계획을 짜놓고 간다기 보다 이뤄진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일축. 오은지기자

2620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도 3월까지 4837건을 처리하는 등 불법 주·정차 가 여전히 실정. 시 관계자는 “공공소화전 주변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금지지역 확대 추진을 포함 주요 민원구간에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게스트하우스 집중 점검

○...서귀포시가 '파티' 등 퇴폐·변태 영업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스트하우스 10여곳을 집중 점검중. 이는 블로그나 SNS 등의 게시물 미뤄 파티를 여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스트하우스가 확인돼 점검을 통해 미신고 영업은 영영중단 계도후 지속영업 시 고발할 계획. 시 관계자는 “대부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는 '파티' 등 업종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영택(향년 7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라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인 홍숙녀 아들 문태효 며느리 김미경 태현 문선영 사위 김경석 선아 신상훈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기형(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라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24일 아들 이희준 며느리 신혜란 희영 김윤경 딸 이희경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대勢 대!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시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수진(향년 8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라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인 이임후 아들 문승환 며느리 김홍미 석환 김정혜 딸 문혜성 사위 이동수

백도라지 분말 관상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